

2022년 제6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

일 시 2022년10월4일(화)14시

장 소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

제1호 안건

** 컨소시엄 사업계획 및 입주계약 변경(안)

제1호 안건설명

*****(***)

예, 첫 번째 안건입니다.

첫 번째 안건은, *개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그 대표사인 **사에서, 그 5개의 지분 중에서 그 *개사가 지금 ***** 인해서 지분을 **에서 흡수하는 그런 건입니다.

그래서 지금 본다고 그러면, 입주계약은 ***** 날 계약이 체결됐고요.

4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 심의하는 안건은, ‘서울시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, 컨소시엄에 참여기업의 제외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.’라는 그 입주계약서에 의해서, 저희 심의안건이 들어온 건이고요.

유사한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, *****

그 내용을 보면, 소유권 미등기가 된 컨소시엄 참여사의 탈퇴나 지분 변동 시에는,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정량평가를 재실시해서, 그 결과가 기존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

그래서 *****

***** 경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

6쪽 보시면 저희가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를 다시 해본 결과, 기존 *****의 탈퇴로, 나머지 참여사의 그 연구개발비나 인력 등이 조금 보강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고요.

그리고 기존에 연구면적이나 그 비율은, 기존 사업과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정량평가 점수가 기존에 320점에서, 그 컨소시엄 변경한 후에 333점을 이루고 있어서, 기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컨소시엄 구성원 축소는 저희

위원회 사전승인 사항이고요.

*****정량평가 재 실시 결과가 기존 점수 이상이어서, 사업계획의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예, 이상입니다.

제1호 안전심의

***** (**** 위원)

예, 그럼 위원님들, 지금 방금 설명한 안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.

특별히 질문 없으십니까?

***** 위원

이게 우리 ** 컨소시엄이 언제 심의가 언제 했었던 거죠? 이게.

***** (****)

저희 위원회 심의는 *****에 있었고요.

***** 위원

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,

***** (****)

예.

***** 위원

그 심의했었을 때 안전이었잖아요.

***** (****)

예, ***** 날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주계획을 심사를 하셨고,

***** 위원

예.

***** (****)

그거에 따라서 입주계약이 ***** 날 체결됐습니다.

***** 위원

그 우리가 그때 정량평가가, ***** 점수를 종합점수가 66점이었고 재무안정성은 ***%여서,

***** (****)

예.

***** 위원

정량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, 그냥 이렇게 가이드 정도
의 미달되지 않는 범위, 그러니까 기존에 컨소시엄보다는 제일 하 점수
였지만 그래도 충족된 정량평가를 받았는데, 그*****

기준이었을 거 아니에요?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그게 그렇죠?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그러면 그 갑자기 *****, 그니까 아직 재무결산이 되지 않
은 상태잖아요.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, 뭐 제가 경제적으로 회계결산연도
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모르겠는데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아, 예.

***** 위원

...어떻게 된 거예요?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위원님 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.

***** 위원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그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시점에는 20년도 기준으로,

***** 위원

20년도 기준이요?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.

지금 부채비율이, 그 심의안건에는 2021년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지금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. ...심의안건은.

***** 위원

그래서 저 우리 심의 기준은 2020년 기준이고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렇습니다.

***** 위원

그다음에 지금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본, 예, 입주계약 변경 안건은,

***** 위원

‘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.’라는 기준은 21년 기준인가요?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렇습니다.

*****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요,

***** 위원

그러니까,

*****면.

***** 위원

여기서 우리가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, 재무안정성 부분에서는*****%, 근데 갑자기 그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‘불과 1년 사이에 *****%가 늘었다.’라는 게 이게,

***** (***** 위원)

이런 부채비율을 본 적이 없는데요.

***** 위원

전 이런 부채비율이 그 1년 사이에, 그리고 이 정도의 컨소시엄으로 해서, 여기가 뭐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었어요.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그래서 뭐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대상 토지는 아니었는데, ‘*****’라는 건, 저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이나 회계결산기준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고, 그렇다면 2020년 기준을 국세청 우리가 아까 기준이라고 했나요? 결산기준을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맞습니다.

***** 위원

뭐 이거 이해가 잘,

*****(***)

뭐 기업의 뭐...뭐 혹시 그런 거 들은 적 있습니까?

***** 위원

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...

*****(***)

기업의 뭐 세부 상황이라든지, 이런 거 들은 뭐 들은 게 있어요?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아, 그, 예, 관리단 *****입니다.

*****(***)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그 입주기업이 그 위원회에서,

*****(***)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사업자로 선정된 지 불과*****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,

***** 위원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위원회에 입주계약 변경안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게 된 건인데요.

*****라는 그룹의 그 내부 경영 사정에 대해서까지는, 저희 관리단 입주변경계약 신청 시에,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저희가 관리단에서 파악하지 못했지만, 실질적으로 그 내부 *****를 제출해준 사례로 비추어보아, 곧 *****를 실질적으로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

***** 위원

예, 이게 보니까, 제가 그 전에 평가할 때는 참여하지는 못했었는데요.

지금 이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를 잠깐 보면, 이 ***** 엄청 많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.

근데 그 원인이나 이런 거는 뭐 저도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, 회계상 비추어 생각해볼 때, ‘*****.’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 그 재무제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?

***** (***)

예, 여기요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재무상태표는 위원님들께 첨부로 제공해드린 그, 예, 위원회 그 회의자료 뒤에 보시면,

**라고 쓰여있는 거기 뒤쪽에 보면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**, 예, **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중간쯤 보면 있습니다, *****재무제표 확인.

***** (***** 위원)

매출 총손익이 *****?

*****이 플러스인데요?

우리가 정량평가가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다 집행부의 정량평가는 세부 내용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결과로만 봤기 때문에, 그 결산기준을, 지***** , 우리가 그 정량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겼었던 재무안정성이.

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었고, 여기 그 당시 약간 이 컨소시엄이 ** 컨소시엄인데 **가 사실 2개 컨소, *개의 컨소 시업사에서 2개사 그 **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맞습니다.

***** 위원

그 **의 뭐라 그럴까, 법인 * 법인과 그 자**였잖아요.

그리고 나머지 *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건데, 거기서 **을 빼면 사실상 하나, 두 개,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한번 정량평가 했을 때 기준 제시점을 결산기준을 조금 더 내밀하게 잘 봐야겠다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...

***** 위원

혹시나 나중에라도, 이런 부채비율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회사라는 게 무슨 어떤 사업에 큰 악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‘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그 심의가 이루어진다.’라는 거는, 우리 공공에서의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 속하는 이게 그 사항 같아요.

***** 위원

여기 보니까 직원 **명에 매출 *****인데, 이런 회사도 여기 이런 데 분양 입주가 가능한가 보죠?

작은, 엄청 **하네요.

***** 위원

제가 * 위원님 발언에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.

지금 제시하신 자료에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*****를 보면, 2021년 기준 당기 재무제표상에 부채총계와 자본총계가, 부채가 ***** 그다음에 자본이***** 이렇게 되어있고, 기준이 평가하실 때 기준 자체에서의 금액이, 부채총계가 그 전년도가 ***** 그다음에 자본총계가 *억,

400만 원이었거든요.

그러면 여기 이 평가 당시 기준이었던 2020년도 재무상태표상에서도, 부채비율은 이미 이것보다, 지금 현재 *****%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, 제시해 주신 재무상태표상으로는.

그래서 지금 * 위원님 말씀처럼, 우리가 평가점수를 줄 때 이렇게 나중에 그 구성 변동이 올 만한 요소가 지금 현재 평가상태에도 있는지,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, 그 재무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,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부채비율, 즉, 그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었을 때 그 백분율이 ***% 이상일 때 그 가장 최저점을 받도록 돼 있어서, 현재 평가지표 구조상으로는 *****는 그 가장 그 최저점을 얻는 것으로, 그 평가에 평가 결과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

***** 위원

예, 그니까 평가점수에서는 그렇게 반영되는 게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.

***** 위원

괜찮지만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.

***** 위원

이렇게 다 선정이 된 이후에, 이게 **할 수 있는 기준에 이미 **되어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아, 예.

***** 위원

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아, 예.

***** (***** 위원)

평가할 때 부채비율이 *****%였거든요, 평가할 때.

예.

***** (***** 위원)

20년 말 부채비율이 *****%인데, 그때 *****죠?
왜 몰랐지?

***** 위원

평가는 *** 대상이 아니라,

***** (***** 위원)

그렇죠.

***** 위원

우리는 **평가만 하니까,

***** (***** 위원)

예.

그니까 그,

***** 위원

그 **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,

최저점만 주고,

***** 위원

예.

여기 점수는 높지 않아서, ***점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낮기는
낮은데,

***** (***** 위원)

예.

그니까 자격 요건을 안 둔 거죠, 저희는.

그냥 최저점 해서 그냥 몇 점 주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건데, 실은 이

게 몇 % 이상이면 아예 자격 요건에서 빼버려야 되는데, 우리는 그거
는 없는 거잖아요, 보면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렇습니다.

부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아예 못 하게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채비율 자체만으로, 그 사업시행청 자격에
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.

다만, 재무적 역량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평가 결과에 반영되
도록 돼 있고,

다음에 할 때는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.

그 부채비율이 진짜 심각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정성적으로라도 알려갖
고, 자격 요건에서 제한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심의할 때 고려해서, ‘이
정도 기업들은 위험하지 않느냐.’라는 건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, 정보
를 제공해 주시는 게,

*****(***) 위원)

그런 건 특이사항으로,

예.

*****(***)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.

*****(***) 위원)

사실상 부채비율이*****%라는 건, 이거는 굉장히 정말 특이한 사항
이잖아요.

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성평가 할 때 알려주시면,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
예,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
*****(***)

알겠습니다, 그렇게.

제1호 안건결론

*****(***) 위원)

예, 이건 *****이고요.

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의견 없으시면, 일단 요건은 갖추어졌기 때문에 승인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

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.

본 안건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?

(“없습니다.” 하는 위원 몇몇 있음.)

이의 없으시면, 토의해서 정해진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(의사 봉 3타!)

다음 두 번째 심의안건은, ***** 컨소시엄 지분처분 관련 심의안입니다.

간사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2호 안건

***** 컨소시엄 지분처분 관련 심의(안)

제2호 안건설명

*****(***)

예,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.

***** 컨소시엄은 4개사로 이루어졌고, 저희 시에서 시의 사업개시

신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*****사이입니다.

그런데 이 *****과 그 소속사인 대한해운의 각 지분을, *****과 *****으로, 각각 소유 지분 일부를 매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.

13쪽 보시면,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사업개시 신고 후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, 즉, 5년인데요.

이 5년이 지나면, 산업용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
다만 우리 서울시 입주계약서에 따르면,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나 양도, 임대, 전대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14쪽 보시면, 저희가 그래서 *****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5년이 경과됐고, 지분처분을 통해서 신규 구성하는 *****이나 *****이, 그 밑에 표에 보시면 ***** 시스템이나 ***** 모델 구현같이,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허용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이고, 연구시설 용도도 50% 이상 확보하는 건이라서,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부합하는 건입니다.

*

*

*

*

*

*

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예, 이상입니다.

제2호 안전심의

***** (***** 위원)

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?

***** 위원

컨소시엄 구성사 변경이, 전체적으로 뭐 여기에서 주장하는 ‘사업의 전체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.’라는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?

***** (***)

뭐 그 이 기업에서는, 사실 저희한테 뭐 ‘***** 악화로 인해서,

***** 위원

예.

***** (***)

그 지분을 매도해야 된다.’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요.

***** 위원

아니,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심의를 할 때,

*****(***)

예.

***** 위원

‘심의 대상 안건이 어떤 사유냐.’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, 아까 전번에 심의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의 그 어쨌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는 거고, 또 애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뭐 사업의 지향의 목표를 위해서, 뭐 이런 양도 신청이 들어온 건데, 그 사유를 이 정성적인 사유잖아요, 사실은.

이전에 거는 정량적인 심의의 사유의 대상이고, 그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, 뭐 ‘여러 가지 심의에 관련된 지침에 관련된 것을 준용한다.’ 하더라도, 이 정성적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내부적인 사업계획안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가.

애네들이 말하는 사업의 시너지가 뭐 *****, *** 이래서,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추측할 수 있는 그 네이밍이 주는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, 정성적인 판단을 무엇으로 근거했는지가, 제가 이게 그 심의안건을 봐도 이것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, 그냥 ‘관련 지침상 근거가 있다.’라는 거 외에는 판단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.

*****(***)

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, 이런 처분은 법상 5년 이상이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.

그래서 그런 처분으로 신청을 한 것이 이 건이 처음이어서, ‘저희 위원회에서 다뤄봐야 된다.’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루는 거고요.

그와 연계해서,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희 시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.

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, 사실 예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거나 하셨

을 때 제일 큰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, ‘우리 마곡단지에서 허용하는 업종을, 여기서 그런 허용 업종을 하는 것인가.’라는 거랑 ‘연구면적비율이, 지금 여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50% 이상 준수하는가.’라는 것들이 큰 저희 심사의 기준이었습니다.

***** (**** 위원)

그러니까 ‘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는 업종이고, 또 R&D 그니까 그 전체 면적의 R&D 비중이 또 우리가 규정하는 그,

***** (***)

예.

***** (**** 위원)

면적 이상이다,

***** (***)

그, 예.

***** (**** 위원)

그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다.’ 이런 거죠?

***** (***)

예, 그렇죠.

그니까 그 외에 지금 ***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적인, 그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,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량적인 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.

정성적인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은,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.

***** 위원

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, 지난번에 우리 ****과 관련된 거는 행정 이 승소한 거잖아요.

***** (***)

아, 이 **이요?

***** 위원

이 ** 말고, 이전에 우리 산업집적법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‘이것을 도***사업으로 봐야 되느냐, ****개발사업으로 봐야 되냐.’라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안건 심의할 때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, 그 위원님께서,

***** 위원

예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성원가,

***** 위원

그 조성원가에 대한 **이 있었잖아요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산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,

***** 위원

예, 그렇죠.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*****에 따르느냐,

***** 위원

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거는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산업집적법에 따르는, 예.

***** 위원

우리 **이 승소한 사항이기 때문에,

마곡산업단지관리단 *****

예.

***** 위원

그 기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우리가 뭐 경청하지 않는 게 아니라, 정확
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, 분명하게 부합하기는 하
지만, 어쨌든 컨소시엄 내에서
*****, 뭐 기준이 법 존재하는 그
테두리 안에서는 뭐 당연히 허용해줘야 되죠.

다만 ***** 어떤 행정의 기준만으로 판
단할 수 있을 것이냐.

그리고 ‘*****

*****.

'라는 거예요, 제 생각에는.

왜냐면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, 계속적으로 *****

***** 평가를
할 거냐.

이거 왜냐면, 지분처분 관련된 것은 범으로 5년 이후에 경과로 부합하
는 것이지만,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심의 대상
이거든요, 이게 심의 대상.

그러니까 '*****.'라는 거죠, 제 생각에.

그냥 '5*****.'라고 하지만, 그것은 심의를 안건
을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충족조건이고, 그러면 '거기서 심의를 할 수
있는 정성적인 부분을,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질의
하고 판단하고, 그것을 평가의 배점으로 그 날인을 하는 서명을 하느
냐.' 이거에 대한 책임 여부거든요.

근데 그 부분이 *****, 사실적으로 보면.

예, 그런 아쉬움이 있다.

뭐 다른 위원들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.

***** 위원

이건 정성적인 부분이어서,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*****에 대한 의
*****하지 않는데, 그 지분 변동에 대한 권리는 요구하는 상황이어서
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 기준에 대한 게 사실, 그래서 혹시라
도 문구상에,
*****, 한번 여
쭉보고 싶었고요.

그다음에 두 번째는, 여기 지분 변동 전하고 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

***** 위원

*****?

***** (***)

*, 총 ***,

***** 위원

*****...

***** (***)

제2호 안건결론

***** (***** 위원)

(“예.” 하는 위원 다수 있음.)

***** 위원

예, 좋습니다.

***** (***** 위원)

예,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, 출석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.

위원님들 *****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, 토의해
서 정해진 대로***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(의사 봉 3타!)

세 번째 심의안건은, 입주기업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심의입니다.
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3호 안건

입주기업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 심의

제3호 안건설명

***** (***)

예, 18쪽입니다.

본 안건은...*****라는 기업에서, 지금 건축물 준공을 공사 중에 있고요.
지금 그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인데요.

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19페이지 잠깐 보시면, 한 차례에 준공기한
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.

****월 달 저희 **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준공기한 연기를 했었고요.

그래서 변경된 것이 *****일입니다.

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,
***** 인해서 외부공사 진행에 차질

*****(* ***) 위원)

예, 이거는 뭐,

***** 위원

기준에 비슷한 건으로 온 거 ***** 건들은 있기 때문에,

*****(* ***) 위원)

예.

***** 위원

*** 차원에서 일단 그거는,

*****(* ***) 위원)

예.

***** 위원

***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.

***** 위원

준공허가는 우리 ***에서 내주잖아요.

*****(* ***)

예, 맞습니다.

***** 위원

예, 맞습니다.

***** 위원

***에서 ***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건축,

부당...걸릴 겁니다.

***** 위원

그 ***를 안 해 주는 **를 어떻게 하나요?

*****(* ***)

지금 그,

***** 위원

저희들보다 아마 법률가가 더 잘 알 겁니다, 그건.

*****(* ***)

예,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준공하고 나서도, 저희한테 ***** 승

인해 주는 건이 있는데요.

*****(***) 위원)

예.

*****(***)

저희가 거기에서는, 당연히 *****과 관련해서 연계할 계획은 있습니다.
근데 지금 이 건은,

***** 위원

예.

*****(***)

저희도 고민이에요.

사실 이거를 저희가 ***** 연장을 안 해 주면, 이거에 따라서 **을 제
대로 안 했기 때문에,

***** 위원

예.

*****(***)

저희가 계약 해지의,

***** 위원

해지될,

*****(***)

요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.

그래서,

*****(***) 위원)

예.

*****(***)

‘*****.’ 뭐 그런 고민은, 내부적으로 있습니다.

제3호 안건결론

*****(***) 위원)

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그 *****하는 것으로,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
기 때문에,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.

(의사 봉 3타!)

총 결론

*****(***) 위원)

이상으로, 제6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

(의사 봉 3타!)